

## 기술개발의 효율화로 도약 발판 마련해야



장 석 <선박해양공학연구원 소장>

먼저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한조선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성장하여 산업자체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조량에 있어서 '80년 이후 세계 제2위 조선국의 위치를 고수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선진국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들의 조선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압력과 동 서양을 막론한 조선 선진기술국의 핵심기술 이전 회피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국인 일본은 기존의 조선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술 및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초고속 화물선, 초전도 전자 추진선 등 신형식 선박과 조선 CIMS, 가상조선소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능의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장비등을 건조하여 세

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산업으로서의 진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기술경쟁력의 열위는 타분야의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변기술과 산업의 기반이 아직 취약하고 수출위주와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동안 매출액 대비 1% 내외이던 기술개발 투자가 대폭 신장하여 '95년도에는 2.39%를 기록하는 등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공동 연구개발 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이 '94년 설립된 이래 「저속 비대선의 조종성능 고도화기술」개발을 각계의 협력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UN 해양법 발효에 따른 공해역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해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조선소,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가 지난 '94년에 발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개발 공동체의 발족은 우리나라 여건상 경쟁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연구인력, 연구시설, 연구비 등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

해 산 학 연 각계의 기술개발 능력을 결집하는 협동 연구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은 관련 산업을 가속화 시키는 필수 수단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개념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수요기술의 개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요가 적더라도 몇 년 뒤에는 세계 조선시장 구도를 변화시킬 만한 기술이 선진국에서는 끊임없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되고 있으므로 내일의 기술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

각합니다.

기술수요의 조사단계에서부터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의 결집을 통해 기술개발 효율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 다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노력함으로써, 21세기 선진 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

### 장 석

- 1942년 6월 17일생
- 1965년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학사
- 1987년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1990~1992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해사기술연구소 소장
- 1996년~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소장